청량산 유산기(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선비의 산 경관인식에 대한 연구

장병관* · 황국웅** · 박경자***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 ***(사)전통경관보전연구원

Ⅰ. 서론

우리 선인들은 예로부터 산수의 유람을 즐겨하였는데, 특히 신라시대에는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놀고 즐기는데 '아무리 멀어도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리의 국토산하를 유람하면서 심신을 수련하기도 하고 나아가 국토애를 기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단순히 공간적 이동의 유람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묻혀서 산수자연을 즐기는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형성시키기도 했다. 그러나가 15세기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국토산하에 대한 유람에 나서게 된다.

이것은 려말선초(麗末鮮初)의 주자의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사대부들의 의식과 대자연관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리학의 이기론적인 사고에 입각한 합리주의적 태도를 지닌 이들 사대부들은 산행을 하면서 그 동안 뿌리내려 오던 불교의 초월적인 사유방식에 비판을 가하면서 그것을 이기론적 사유로 산을 접하기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조선 중기 양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산행은 단순히 그 시대에 일시적으로 유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철학적 바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남지식인들의 정신적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과 청량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산행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청량산 산행기는 약 50여 편이 수집되어 있다.

Ⅱ. 유산기와 청량산

1. 유산기의 정의

작가의 여행경로를 플롯으로 삼아 행로의 견문을 기록하고 산천경색을 묘사하는 산문작품을 유기(遊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산기 또는 산수유기란 곧 산수를 유람하고 나서 유람 중에 견문한 사실과 거기에서 느낀 감흥을 산문으로 기록한 일체의 기록문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유산기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글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문장 수업을 받고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과는 달리 유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 여건을 갖춘 사람은 양반관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강구율, 2003).

2. 유산기의 형식

자료로 사용한 유산기의 형식은 작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첫머리에 유람의 동기나 목적, 동행인을 기술한 다음 날짜별로 유람을 하면서 견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작가의 여행과정과 함께 여행지역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의 상세함과 그에 따른 전체 분량은 작품에 따라 편차가 크다.

3. 청량산

청량산은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 명호면 · 재산면, 안동시 도산면 · 예안면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에는 안동부의 속현이었던 재산현 지역이었다. 이 산은 최고봉인 장인봉의 높이가 870.4m, 전체 둘레는 40km 남짓한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이나, 선학봉 · 탁필봉 · 축융봉 등 퇴적암류 특히 역암으로 이루어진 12개의 봉우리들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그 경치가 아름답다. 그러나 청량산은 물이 귀하고 바위가 많아 사람들이 농경지를 개간하여 취락을 이루고 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곳이었다. 따라서 지금도 산안에는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의 주거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조선중기까지는 석벽 사이사이에 20여개 이상의 사찰과 암자가 들어서 있었으며, 최치원 · 김생 · 공민왕의 전설을 담고 있는 장소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15세기까지는 여행자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으나, 당시 청량산을 찾던 이들은 안동 · 예안 일대의 젊은 지식인들로 이들은 사찰에 머물면서 독서와 사색에 몰두하였다. 자연히 청량산은 강학의 공간이 되었다. 청량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인데, 여기에는 주세붕, 이현보, 이황 등의 역할이 컸다. 특히 청량산은 이황과 동일시되어 그의 제자

들과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순례지가 되었다(정치영, 2005).

4. 청량산 여정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행자들은 청량산 내부를 유람하기 위하여 대개 1~3일 가량을 머물렀다. 보통 2주일 정도를 산 속에서 체재하는 금강산 유람에 비하면 매우 짧은 일정으로, 산의 규모가 훨씬 작고 그 만큼 볼거리도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량산 유람여정은 금강산의 그것과 달리, 여행자에 따라 경로와 경유지가 다양하지 않다.

청량산 내의 경유지 중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들른 곳은 연대사이다. 연대사는 현존하지 않으나 여러 기록과 그림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현 청량사 자리에 있었던 절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는 청량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로 여행자들의 주된 숙박지로 이용된 곳이다. 연대사 다음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은 치원암, 김생굴, 만월암, 상청량암, 안중암, 총명수 등의 순이다.

이와 같은 특정한 장소에 방문객이 몰린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장소들이 단순한 경승지가 아니라 선인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서로 인접해 있는 치원암과 총명수는 최치원의 전설이 전해질 뿐 아니라 그를 추앙하는 사대부들은 빠짐없이 방문하였다. 만월암・안중암・상청량암은 오래된 사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선 전기부터 안동과 예안일대 학자들이 독서 장소로 이용해 온 곳이어서 제자나 후손들이 그들의 흔적을 찾아 선인을 추억하려 하였다. 둘째, 여행자들은 앞서 여행했던 사람들의 여정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미리 주세붕을 비롯한 선인들의 유산기를 읽고 이것을 여행에 참고하였기 때문에 선인들이 찾은 곳, 특히 상세히 서술하거나 높은 평가를 한 곳을 꼭 방문하려고 하였다. 셋째, 여행자들은 금강산, 지리산 등을 유람한 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상이나 주요 봉우리에 오르는 이는 적었다. 이것은 자란봉・연적봉・탁필봉 등 청량산의 봉우리들이 급경사의 암벽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신 청량산 곳곳에 산재한 암자들을 경유하는 형식으로 유람을 하였다.

Ⅲ. 연구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선비의 산 경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현재 까지 알려진 49편의 유산기를 살펴 본 후 경관에 대해 분석 가능한 유산기로 판정되는 32편을 일반적인 경관인식의 틀을 토대로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즉, 경관특징(Landscape Feature), 경관형태(Landscape Form), 경관체험(Landscape Experience), 경관조망(Landscape View)이다. 본 연구에서 경관특징은 뚜렷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로 경관형상을 언급하는 문장, 경관형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모양, 크기, 색채와 질감에 대해 언급한 문장, 경관체험은 그 대상물에서 오감느낌과 활동 행위에 대해 언급한 문장 그리고 경관조망은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경관감상 즉 원경, 중경, 근경 그리고 앙각, 부각 등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말한다. 그리고 경관 대상을 역시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봉우리, 대, 역사문화유적지, 기타 숲과 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표 1. 청량산 유산기를 통해본 경관분석 (언급한 작가의 수, 단위: 인)

구분	경관특징	경관형태	경관체험	경관조망
산봉우리	24	9	1	4
대	10	10	1	10
역사문화유적지	10	10	10	-
기타 숲, 바위, 물, 길 등	2	3	-	-

Ⅳ. 연구결과

1. 전체경관

분석표에는 빠져 있지만 전체 경관에 대해 서술한 유산기는 3편으로 당시의 지리적 지식과 경관형상 그리고 경관비유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둘레는 백리이고 산꼭대기에서 하늘까지는 다섯 자밖에 안되며, 황지에서 흘러온 물이 그 아래를 두르며 흐르고 동쪽으로 단양의 경계와 닿아 있다.”, “여러 봉우리가 나란히 이어 있으며 층층 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단정한 사람이나 바른 선비가 옷깃을 바로하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서 보통 사람들이 겨루지 못할 바이다.

2. 산봉우리

산봉우리는 험준하고 위험하여 오르지 않아서, 주로 다른 장소에서 감상한 결과 대부분 경관형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봉우리 위에 오른 곳에서는 구체적인 경관형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산봉우리 경관형상은 주로 봉우리명과 관련되어서 형상을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연화봉은 온전히 연꽃과 비슷하여 기세가 준절하니 여러 봉우리 가운데 으뜸이다.”, “봉우리 곁이 네모지고 둥글어 향로 같이 생긴 작은 바위봉우리가 바로 향로봉이다.” 그리고 경관형태의 예도 다음과 같다. “연적봉은 그 높이를 헤아려보니 4, 5장은 될 듯하다. 정상은 6, 7명이 앉을 수 있는 듯하다.”, “축융봉 위에는 산성이 있는데, 그 넓이는 1,350자이다.”

3. 대

청량산의 대는 전망이 좋은 공간이 있는 평탄한 바위이다. 실제 역사문화유적지와 구별한 것은 분명히 대로 언급하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판별이 쉬워서이다. 대의 경관인식은 대 자체의 특징보다는 대에서 바라보는 경관형상을 서술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반야대에서 바라본 향로봉과 연화봉의 높이는 백여 길이고, 우뚝 솟아 있는 버팀기둥 같은데 그 색이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였다.", 경관형태에 대한 언급은 산봉우리에서 말한 수준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풍혈대는 넓이가 수십자이며 높이는 4,5척이다. 비바람도 미치지 않아, 최치원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고 전한다".

4. 역사문화유적지

청량산 역사문화유적지는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라시대 유적지로 김생과 최치원 선생이 거처한 곳, 고려시대 축융봉을 중심으로 생활한 공민왕 유적지 그리고 이황선생과 다른 선비들이 공부한 강학공간이 있다. 그리고 기타 유적지로 수십 곳의 사찰 등이 있다. 대부분의 유산기에서는 선비들과 관련된 곳을 중심으로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공민왕에 대해 그리고 선비들이 거처하지 않은 사찰에 대해서는 문장으로 언급한 예는 드물다. 배불숭유의 사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경관특징, 경관형태 그리고 경관체험이 고르게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생굴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가옥처럼 널찍하여 비와 눈을 막을 수 있었고 바위 위에서 날리는 샘물이 어지럽게 떨어져 사람의 옷과 머리털을 다 적셨다."

5. 기타 숲, 바위, 물, 길 등

일반적으로 유산기는 몇 쪽이 되지 않은 분량으로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기타 사항으로 언급되어 것이 별로 없다. 발췌한 몇 문장은 주로 숲길에 대한 언급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연대로 내려오는데 길이 아주 달려서, 내려가는 모양새가 마치 흐르는 탄환처럼 빠르다."

V. 결론 및 고찰

청량산 유산은 청량산 주변 지역 사대부의 지역문화에 대한 귀속성, 연대의식, 자부심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은 유산을 퇴계에 대한 특별한 존모의 의식 연장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유자들은 도덕적 승화로서의 청량산을 체험하게 되어서 자연미 감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산기에서 구체적인 자연경관인식보다는 정신미 추구를 강하게 반영하였다(박영순, 2005).

청량산 유산기는 자연경관에 대한 서술은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산 경관에 대대 고찰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자연 대상물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과 유자가 경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그 형태를 사람의 활동과 관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장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가 조망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선비는 대에서 본인의 인생관 도덕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사문화유적지를 돌아볼 곳에서는 경관특징, 경관형태 그리고 경관체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량산은 조선 선비의 순례 장소로 인식된다. 그래서 유람이 아닌 자신의 성찰의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유산기에서 볼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자연로운 묘사가 적었고 자신의 내면을 많이 수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점 사실적 경관인식을 연구하는 자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용문헌

1. 강구율(2003) 청량산 유산기에 나타난 영남지식인의 자연인식. 영남학4.
2. 정치영(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1): 54-70.
3.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4. 박영숙(2005) 18세기 청량산 유산기 연구. 한자한문연구 12: 325-357.
5. 우응순(2006) 淸凉山 遊山文學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변모 양상: 이황의 작품중심으로. 語文硏究 34(3).
6. 이종묵(2001) 퇴계학파와 청량산. 정신문화연구 24(4).
7. 우응순(2004) 산수유기의 전통과 주세붕의 유청량산록. 우리문화연구 제14집.
8. 박영순(2006) 청량산 유산과 도덕적 주체의 응혼미 추구. 한자한문연구 제2호
9. 전병철(2009) 청량지를 통해본 퇴계 이황과 청량산. 님영학연구 제26집.